朝鮮日報 朝刊

社說

母性과 社會

우리女性界를 一警하고

一

朝鮮에 新文明이 輸入되고 敎育이 普及되어 社會가 進步함에 따라 朝鮮女性도 新文明의 惠澤을 입어 날로 自覺하고 날로 向上하야 數千年 동안 暗黑의 闇中에서 보내든 奴隷的 生活을 벗어나서 傳統과 因習의 무거운 羈絆을 끈코 오직 新光明을 向하야 突進하면서 女權擴張과 女性의 地位向上에 不屈의 努力을 다하엿다. 이러하야 新進自覺한 新興女性의 意氣는 不日에 先進社會의 女性을 凌駕할것가튼 氣勢를 보엿던것은 實로 驚歎할 現象이엿다. 그러나 近者에 우리社會를 싸고도는 沈滯와 이에따른 自暴自棄的 頹廢氣分의 擴攬에 依한 不愉快한 社會的風潮에 因함인지 女性社會에도 進步와 向上의 堅實한 氣風보담은 오히려 無爲와 安逸을 貪하며 卑劣과 頹廢에 기우려 一步退步된 奴隷的生活을 스스로 求하야 스스로 滿足하려는 不美한 傾向이 漸次 浸透되고 잇는것 가티 보힘은 實로 一大遺憾이라고 아니할수 업스니 이는 朝鮮女性을 爲하야서뿐만 아니라 全朝鮮民族을 爲하야 슬퍼할일이다.

二

이것이 決코 吾人의 誇大한 妄想에서 나온 臆說이 아니니 우리가 每日가티 新聞紙上에서 보게되는 失戀自殺이니, 情死니 不正結婚破綻이니, 慰藉料訴訟이니 이루 枚擧키 難한 不愉快한 報道는 이것을 明白히도 例證하고잇는것이 아닌가? 이것이 배우지못한 無識한 農村女性이라면 오히려 그罪科를 無智에나 돌릴수 잇겟지만 敎育이 잇고 自覺이 잇다는 新進女性에 이런 事實이 가장 만타는 事實은 吾人을 啞然케 하는바 잇다. 人格의 尊嚴과 價値도 忘却하고 그社會的義務와 責任도 모르는체 幻覺的인 허된 欲望에 끌려서 亡身하는 女性이 不少하고 이傾向이 逐日增加하고 잇는것은 可憎할 일이다. 物質的滿足으로서 生活의 最高理想으로삼는 風潮가 그네들을 腐敗케 하고잇는것 갓다. 敎育이 잇고 自覺이 잇다는 女性이 이와 갓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期待할것이며 敎育의 必要가 어대잇겟는가. 이제도 過渡期的現象이라하야 糊塗하고만 잇슬것인가. 이것은 確實히 退步이오 墮落이다.

三

무릇 어떤 社會를 勿論하고 女性의 그社會에 잇서서의 地位와 任務는 重大한것이니 或은 家庭의 主婦가 되고 或은 職業에 從事하는等 여러가지 生活形態를 가진다하더라도 廣汎한 意味에 잇서서는 結局女性은 곳 그社會의 母性으로서 그社會의 根本이 되어잇는터로 社會를 運轉하는 眞正한 原動力인것이다. 簡單히 말하자면 次代를 形成할 國民을 出生하고 그養育과 敎導의任에 當하는이는 곳 그社會의 一般母性이니 嚴正한 意味에서 한社會의 興亡盛衰는 곳 그社會의 母性如何에달렷다고도 할수잇슬것이다. 이러한 重且大한 任務를 가진 女性의 一般傾向이 不美하다 할진댄 그社會의 前途는 可히 憂慮할것이다.

四

더욱이나 우리社會는 아직도 敎育이 普遍化하지못하야 知識人의 數는 極히 적으므로 新女性으로서 一個人에만 끈치지 안코 民族社會에 影響을 미치는것은 一層더 한다면 맛당히 一千萬女性의 指導의 任에 當할 先導者이다. 그러므로 첫재는 一千萬女性의 指導者의 責任을 가지고 둘재는 朝鮮母性으로서의 責任을 가지면 朝鮮新女性의 멍에야말로 무겁다할것이며 그길은 멀다할것이다. 이러한 무거운 멍에를 메고서 어찌 安逸한 꿈의 나라에서 彷徨하며 보잘것 업는 歡樂에서 陶醉하야 累를 次代에 미칠수 잇겟는가? 우리는 먼저 可憎할 頹廢的 氣分을 一掃하고 低俗한 安逸의 夢이 되고저하는 惰眠을 물리처야 할것이다. 그리하야 다시 堅實하고 健全하고 進步的이오 向上的인 思想을 吹入하야써 참다운 自覺을 하지안코면 아니될것이다. 이것이 朝鮮女性의 更生의 길이오 또한 民族更生의 첫걸음이다.

海軍軍縮會議招請 日本은欣然參加

二十九日定例閣議附議決定 藤井代理大使에訓電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 二十九日 閣議에서 海軍軍縮本會議招請에 關한 日本政府의 對英回答案을 說明하고 各閣僚의 承認을 求하야 正式決定하엿슴으로 藤井代理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엿다

【東京電話聯合】軍縮本會議招請에 關한 日本政府의 回答은 二十八日로써 案文調製를 終了하엿슴으로 二十九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야 正式決定한後 即日 在倫敦藤井代理大使에게 訓電을 發하야 英國政府에 回答文을 手交하기로되엇다 右參加回答案文의 內容은 嚴秘에 附하고잇스나

一、華府、倫敦兩條約의 規定에 依한 海軍軍縮會議의 招請을 接受한 日本政府는 欣然 이를 應諾參加하겟다는 것을 通告하는 光榮을 가진다

一、但 從來 屢屢 聲明한 바와가티 日本政府는 忌憚업는 意見交換을 行하야 徹底的軍縮의 協定成立을 希望하고 右目的達成을 爲하야 協力할 用意가 잇다

一、十二月二日의 會議開會日程에 關해서는 異議가 업스나 遠隔의 地임으로 出發準備의 關係도잇스므로 倫敦到着은 多少遲延될는지도 모른다는 程度의것으로 議開되다 會議日程에 對해서는 回答의 趣旨에 餘裕를 주어 미리 英國政府의 考慮를 促하는 態度를 取하고잇다

代表人選問題 外海兩省意見一致

【東京電話電通】英國政府의軍縮招請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答에 對해서는 外務、海軍兩當局間에서 協議中이던바 兩省間의 意見이 全혀一致되고 代表의人選에 關해서도 大體諒解가 되엇스므로 드디어二十九日의 定例閣議에 附議하고 承認을求하야 即日 藤井駐英代理大使에 訓電을發하야 英國政府에 通告케 하기로되엇다

軍縮會議全權을 永井大使受諾

代表一行來月十四五日頃出發

【東京電話聯合】海軍軍縮會議外務省側全權에 對하여는 廣田外相은 永井松三大使를擬하야 重光次官으로부터 表面交涉을 하엿든바 永井大使의 意向도大體로 判明되엿슴으로 二十九日午前十時 大使를外務省으로 招致하고 廣田外相으로부터 全權으로 出馬하기를 懇請한結果 永井大使도 內諾을與하엿슴으로 廣田外相은 閣議에 臨하야 大角海相에 對하야 永井大使內諾의 事情을 報告하엿다

【東京電話聯合】海軍軍縮會議日本代表에 對하여는 廣田外相과 大角海相의 二十九日閣議前後에 愼重協議한 結果 左와如히 內定하엿슴으로 來四日閣議에 附議하야 正式으로 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一行은 來月十四五日頃에 出發하야 同會議에 臨할터이다

主席全權 海軍大將 永野 修身
全權 特命全權大使 永井 松三
倫敦에잇서 海軍軍縮會議帝國全權員命함

伊리비아減兵을開始

【로-마二十八日發電通】리비아派遣 伊太利軍一個師團의 撤收는 마침내開始되여 先頭部隊는 二十八日 軍用船으로 이미 本國으로 歸還하는 途上에 올랏다 그리고 殘餘部隊는 來週中에 歸還할터인데 十一月初旬中에는 一個師團全部의撤收를 完了할 豫定이다

國內에深入케하고 一齊反擊 에디오피아軍作戰

【지지가二十八日發電通】當地駐箚 英國領事 차프만·프레드리氏는 英領소말릴란드의『할게이사』에 두엇든 家族을 當地로불러왓는데 旅行中 一行의安全을 圖하여준 에디오피아 南軍總司令 나심將軍을 特히 二十八日午餐會에 招待하엿다 나심將軍은同領事와의 會食後 南部戰線의戰況에 關하야 左와如히 公表하엿다

에디오피아軍의 軍事行動은計畫대로 進行되고잇다 伊太利軍은 웨베시베리河에 沿하야南進하고잇는데 이方面에서는 我軍은 一定한 地點까지 戰略上無抵抗의 作戰을 取하고 잇다 即我軍의 作戰은 同方面으로부터 伊太利軍이 國內 깁히侵入함을 기다려 反擊을 加하려하는것이다

伊占領地帶鑛物踏査

【아도와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鑛山技師數十名은 二十八日 악숨으로부터 아도와에 到着하얏는데 一行은 近近 前線에 赴하야伊太利軍이 占領한 티그레州北部一帶의 鑛脈踏査를 遂하고 鐵、銅、金鑛埋藏量及今後 採掘方法에 對하야 硏究할터이다

伊空陸呼應하야 사사바네攻擊開始

【모가데이쇼二十八日發聯合】伊太利南軍의 右翼部隊는 連日 降雨가잇슴에도不拘하고 고라헤이西北百六粁의 오가덴州首都사사바네를 指目하고 着着進擊하고잇다 空軍의精銳爆擊機數臺는 二十八日 사사바네에 爆擊을 加하고 南方三十粁의 다가불山麓에 爆彈을 投下하는 一方 南軍總指揮그라차니將軍麾下의 主力部隊는 웨베시베리河에 沿하야 着着 奧地로 向하야行動을 繼續하면서 右翼部隊와互相呼應하야 사사바네北方及 에디오피아南軍根據地지지가를 攻略하는 作戰을 開始하리라고觀測된다 에디오피아南軍은 有力한 伊太利軍의進擊을 阻止하기爲하야 目下 主力을 하랄에集結하고잇는데 伊太利空軍部隊의 準備가 全部 完了되여 近近하랄에猛烈한 爆擊을 敢行하야 에

聯盟과步調一致코 對伊經濟制裁實施

國際現政局突破엔日米獨의協力必要 英首相施政方針演說

【월밤롱英國는二十八日發電通】十一月十四日의 總選擧를 目前에앞두고 選擧運動에 熱中하고잇는 볼드윈英首相은 二十八日 當地에서 政府의 一般施政方針과 同時에 現下의 國際政局에 對處할 英國政府의 態度와 聯盟과의 關係에對하야 大要如左히 述하야 多大한 注目을 끌엇다

今回의 伊에紛爭에 關하야 聯盟이 侵略國伊太利에 對하야 取한 措置의 處置는 將來 或은 歐洲의 平和를 攪亂하는·結果를 招來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英國政府로서 聯盟과 行動을 가티하야 對伊經濟制裁實施에 參加할것은 勿論이나 適當한 國防力의 充實을 보지안는限 將來에 起할 事態에 對하야 政府는 責任을 負할수업다 英國政府는 구지 重大한 軍備整備를 目的으로 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戰前에 建造된 舊式艦船을 最新式艦船으로서 代位하려고 할뿐이다 平和에對한 危機는 聯盟이 將來 어떤時期에 聯盟規約遵守에 進出할때가 到來할것이다 現在 伊太利에 對하야 制裁를 加하려는 國家에 對하야 如何한 物質이라도 輸出함을 禁하는 程度로 滿足할것이다 英國政府로서는 끗까지 聯盟規約遵守의 方針을 堅持할것은 勿論이나 聯盟各國과의 共同動作을 떠나서 英國스스로 冒險에 進出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업다 그리고 聯盟도 적어도 非聯盟國中의 米國、獨逸及 日本의 支持가 업시는 對伊制裁와 封鎖의 極端的手段을 取할수는 업슬것이다 (寫眞은 英首相)

英佛共同工作에 俄然新機運出現

一大新協定의基礎를確立 佛首相의二大讓步로

【巴里二十九日發電通】佛國政府外交側에서 聞知한바에 依하면 英佛交涉은 二十八日에意外로進捗을 보게되여 十一月一日午前에서 라발首相과 호어英外相間에 正式으로 締結되는 會見當局에 一大新協定의 基礎가 確立되엿다 佛國側의 主張에依하면 라발首相의 二大讓步에依하는것으로 即

一、佛國은 伊太利가 對英攻擊을行할境遇에는 陸海空軍全部로써 全面的으로 英國支持를 約束할것

一、八月 英佛會議에서 成立된 英佛案을 骨子로하는 和協案을 要綱으로하야 伊首相에게 提示하야 그受諾을 强要할것

第二點을 라발氏로부터 二十六日附書翰으로서 倫敦에 急送한데對하야 二十八日 호어英外相으로부터 자못 好感으로서 右를 諒解하엿다는旨를答한 意思表示가잇서서 玆에 英佛共同和協工作에 새로운 端緖가열리게되엿다

스運河警備코저 英陸兵三千名을增派

【알렉산드리아二十八日發電通】말타島駐在 英國陸軍將兵一千名은 運送船으로 當地에 到着하고 또 印度駐在英兵二千名도運送船三隻에 分乘하야 스에즈에到着하야 스에즈、알렉산드리아中間의 이스마리아에 露營中이다 스에즈運河警備를 爲하야 合計三千名의 增派를 보게되엿다

팟시스트進軍 十週年記念盛大擧行

【羅馬二十八日發電通】팟시스트羅馬進軍十三周年記念日에 當하는 二十八日의 羅馬地方은 이제 비가 내려쏘을것가튼 日氣임에도 不拘하고 羅馬及 伊太利全土는 뒤끓는듯한 歡樂의 잔치를 베플엇다 팟시스트黨員의 黑內衣色에 휩싸여 非常時局과 아울러 國民의 意氣는 자못高揚되엇다 銀行會社商店은 休業、官廳마저 事務를 보앗스나 거의 半休狀態로 市民은 老若男女의別이업시 街頭에 몰려나와 羅馬는 바야흐로 興奮의 도가니

西北의冷害封策 十二年度부터補助

西北朝鮮六道에亘한冷害 高地帶對策은 旣報한바와 갓거니와 明年度에는 總督府豫算에 計上하기不可能함으로 地方費로서 支辨하고 十二年度부터는 이에該當하는國庫補助를 考慮하는 同時에 總督府로서의 對策을 考究할터인데 그內容에 對하여는農産 林政 土地改良 農政各部門에잇서 今回의 協議會決定事項을 基礎로하야 具體案을 決定할터이다 大體對策의內容은 第一案五個年 第二案十個年繼續事業으로 恒久的施設을 講究하기로되엿다

反日分子一掃에 駐中日本軍待機

中國側自發的掃淸을不圖하면 直接으로彈壓할方針

【北平二十九日發電通】北中事件及 灤州事件後 日本의 北中軍當局의 究明에依하야 探査된 北平方面의 國民黨及 藍衣社員의 潛行殘留分子는 南方으로부터 密派된것만으로도 五、六十名에 達하여잇는데 이미 日本當局의 손에 그確證이 드러잇슴으로 中國側에서 自發的으로 그反日分子의 一掃를 圖하지안흐면 或은 日本側에서 直接彈壓檢擧를 加하기 爲하야 萬端準備를 完了하고 待機하면서 中國側의 措置를 監視하고잇다

藍衣社黨部彈壓 黨員六名逮捕

【天津二十九日發聯合】中國側은 日本의重大抗議通告에 先行하야 二十八日 藍衣社 黨部가 活動하고잇는 天津新聞檢査所의 彈壓을 試하야 天津公安局은 六名의 黨員을 逮捕하엿는데 이와同時에 新次黨部의 彈壓에 着手하리라고觀測되고잇다

平津駐在兩武官 嚴重抗議를提出

北平의四責任者에게

【北平二十九日發電通】高橋北平駐在武官은 天津軍中井參謀와함께 二十九日午前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 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 北平市長袁良氏의 四責任當局者에 對하야 北中事件後에도 依然北中에 殘留한 國民黨員 藍衣社員其他排日機關이 存在한 事實이잇는것을 擧하야 嚴重抗議文書를 提出하엿다

에機關銃隊 伊軍機射落

【하랄二十八日發電通】當地에達한 公私의 諸報道에依하면 다카불오라스、맛차호왈크兩將軍이 引率한 에디오피아 機關銃隊는 二十七日夕刻 伊太利의 一爆擊機가 猛烈한 爆擊을 行하고잇는것을 地上으로하야 一齊射擊하야 同爆擊機는 墜落되고 搭乘者三名은 死亡하엿다고한다

北中要人間에 獨立政權을要望

【天津二十九日發聯合】國民黨部及藍衣社가 不逞策動을 繼續하야 北中의明朗化를 阻害하고잇는實情에 徵하야 天津中國有力要人間에는 北中의 獨立政權確立의 氣運이 濃厚化하게되엿다 右要人間에는 藍衣社及 國民黨部의 活動을 斷乎排擊하고 不得已한 境遇에는 國民黨及 南京政府와 絶緣하고 北中에獨立政權을 樹立할것을 主張하고잇는바 北中의 政局은더욱多事하게되엿다

馮玉祥氏 五全大會에出席

【上海二十八日發聯合】六中全會五全大會及 北中問題의 重大化에 伴하야 馮玉祥의 態度는자못 注目되고 잇던바 馮氏는二十九日 泰山을떠나 三十一日南京에 赴하야 大會에 出席하기로 決定하엿다

伊戰勝은事實無根 에國政府發表

【아디스아베바二十八日發電通】에디오피아政府는 二十八日 戰線의 伊太利軍의 集結休止行動을 取하려는 에디오피아軍의 行動에 對하야 伊太利軍은 자조戰勝의 自己宣傳을 行하고잇스나 事實은그러치안코 伊太利側이 投降하엿다고 稱하는 에디오피아의 會長은 全然架空的人物인것을 指摘한 공표니 發表하엿다

一事一言

朝鮮語文禮讚(三)

長白山人

그러면 朝鮮語文이 어찌하야 劣等한것가티 보이며 甚至에 朝鮮人自身中에도 朝鮮語文을 소중이녀기지 안는이가 잇는가.

그것은 첫재로는 官用語가아닌 때문이오 둘재로는 學校에 朝鮮語文의 敎育을 輕視하는 때문이지마는 그中에 가장 重要한 理由는 朝鮮人이 아직 제 語文에 對한 認識과 意識이 不足한 때문이다. 朝鮮人이 만일 朝鮮語文이 이처럼 世界的으로 보아서 優秀한 價値를 가진 語文임을 認識하고 또 朝鮮語文이 朝鮮人과 떼수업는 關聯이 잇음을 意識한다 하면 그는 반다시 朝鮮語文의 所有者임을 幸福으로、자랑으로 알고 아울러 그에 對한 熱烈한 愛着을 느끼고야 말것이다. 초서가 나기前에 英人은 英語의 價値를 몰랏고 루터의 新約飜譯이 생기기까지 獨逸語가 사랑을 바닷고 로지아語가 世界的 價値잇는 말이것이 認識되기도 푸시킨 고고리以後의 일이다. 그前에는 그들은 오직 佛語와 佛語만이 高級한 思想感情을 表現할수잇는 말로 알앗던 것이다. 朝鮮人도 아직 이러한 생각을 가진이가 만흔것이 朝鮮語文의 光彩를 減殺하는 原因이 되는것이다.

朝鮮語가 이만큼 洗練한 古文化가 優秀하엿던것을 證明함이 되는 同時에 또한 이 語文으로 엮어진 未來文化의 偉大할것을 約束하는것도 되는 것이다.

不幸히 아직 朝鮮語文을 닷겨진 世界的인 思想이나 藝術이 나지아니하엿지마는 우리가 朝鮮語文을 아끼고 가꾸어가는 동안에는 朝鮮에서 호머가 나고 풀라톤이 나고 老子가 나고 쉑스피어가 나고 杜甫가 나서 世界人이 그 思想과 藝術을 爲하야 朝鮮語文을 배호고 硏究할날이 올것이 早晩은 잇슬지언정 確實한것이 아니냥.

海軍進級及大異動

【東京電話電通】今年度海軍定期進級及 大異動은 去二十四、五、六의三日間에亘한 進級會議에서 內定되엿슴으로 大角海相은 二十八日 午前十時 宮中에 參內하야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二十九日內命을發하엿는데 親補職은 이에 伴하야 來十二月二日 其他는 來十一月十五日에 發令하기로되엿다는데 主要한 進級異動은 左와如하다

▲異動

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 大將 末次 信正
補軍事參議官
第二艦隊司令長官 中將 米內 光政
補橫須賀鎭守府司令長官
軍令部次長 中將子爵 加藤 隆義
補第二艦隊司令長官
海軍兵學校長 中將 及川古志郞
補第三艦隊司令長官
海軍航空本部長 中將 鹽澤 幸一
補舞鶴要港部司令長官
軍令部出仕兼海軍省出仕 中將 山本五十六
補航空本部長
軍令部出仕 中將 島田繁太郞
補軍令部次長
第一潛水艦隊司令官 中將(新) 出水萬兵衛
補海軍兵學校長
海軍機關學校長 中將 上田 宗重
補海軍省軍需局長
旅順要港部司令官 中將(新) 濱田吉次郞
補駐滿海軍部司令官
海軍省敎育局長 中將(新) 豐田 副武
補海軍省軍務局長
軍令部第一部長 中將(新) 中村龜三郞
補海軍大學校長
第六戰隊司令官 中將(新) 原 敬太郞
補第一戰隊司令官
(以下略)

委任統治委員會見解 徹底的으로反駁

◇駐波公使伊藤博士

【주네브二十八日發聯合】常設委任統治委員會는 二十八日午前 聯盟事務局에서 特別會議를 開催하고 委任統治領에잇서서 日本品待遇에對하야 協議를 遂하고 日本側委員 뽈소우駐葡公使 伊藤博士는 委員會의見解를 徹底的으로 反駁하야 次와如히 述하엿다

委任統治領은 世界大戰後 大使會議의結果 聯盟各國政府에 分配되엿고 國際聯盟은 다만 委任統治實績에對하야 監督의 要衝에當하는데 不過한다 따라 日本政府가 國際聯盟을 脫退햇드라도 委任統治에 關한 日本政府의權限에 조고만消長도 招來치안코 特히 委任統治領에잇서 日本品이 均等待遇를 享受함에도 何等變化를 不許한다

英佛伊三國政府 海軍豫備會談開始

【倫敦二十八日發聯合】英佛伊三國政府는 海軍縮少本會議를 압두고 今週末乃至 來週初 海軍豫備會談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고한다

人事·集會

▲池田警務局長 海州武德館竣功式에 參列하기爲하야 二十九日午前八時發 同地로 赴하엿는데 三十一日 午後一時五十分着歸京豫定
▲篠田李王職長官 三十日午後三時京城驛發渡東
▲赤堀鐵吉氏(京城公立職業學校長) 展覽會終了人事次 本社來訪
▲朴潤雲氏(本社監査役)數日前入京 南山屋投宿中
▲白石貞子孃(圖書課事務官白石光治郞氏三女) 二十九日午前二時二十分別世

夕刊後市況 廿九日

◆大阪 短期 無配◆

大新	九七八〇	(四〇低)
鐘新	一四〇〇〇	(一六〇低)
日産	八〇五〇	(二〇低)
東新	一六二五〇	(一三〇低)

◆橫濱 生系 後引◆
當限 九六八〇〇 先限 九三九〇〇

◆蠶丹 人絹 後引◆
當限 六八二〇 先限 六八三〇

全朝鮮 獨學青年諸君!!
無學은男의恥
普通學校를 卒業하야 上級學校에 못간다고 悲觀하지말나!
自宅을學校로겨우 一個年에쉽게 卒業

立身出世의시작은 于先高普卒業부터
中學講義
日本一
알기쉽기 日本第一
會費가싸기로日本第一
卒業빠르기로日本第一
會員만키로日本第一
諸君의帽上에빗나는學
◇普通學 校만나오므로은 朝鮮에면十萬人이되나、不幸히도上級學校에도못가고곳實社會나오므로家事助力을한분이만타。그런有爲한少年이普通學校以上의工夫를계속못하고無端히度日을한다는것은當者뿐아니라非常時我國을爲하야도悲痛할일이다。
◇今日의 社會에서 成功함에는實際普通學校卒業學力만으로는充分치못하다。高等普通學校程度의學力업스면官吏가되에도官費學校에들어감에도實業家가되에도決코大成못할뿐안이라生活까지不安定하게되다。
無識은嘆息뿐입나다

獨學成功의 길이잇다
◇그러나 家庭形便으로上級校에通學못하고希望에불타면서煩悶하고잇는분은엇지하면조흔가、그것은本校의最新中學講義錄으로工夫함이第一조타。中學講義錄은世上에만호나、個一個年의時急스피ー드로제쳐愉快히卒業한것은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업다。
◇入會한 직每月二冊式合一冊式配本이되고、自宅에서家事의餘暇에朝夕의工夫로僅一個年에쉽게中學全科가卒業되는 組織이다。이와가튼 新式通信敎授法은 스피ー드時代에 適切한 理想的組織으로
◇學科目 은左와如히即 中學正科를全部網羅하고 에는絶對로업다 로이最新中學講義錄의外에는他處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文法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代數 ▲工業
▲圖畫 ▲算術 ▲體育
親切平易함이第一로하고、揷畫를만히너오누구나다알게되고 적적工夫가되다。質問은幾十回라도先生이東京과朝鮮을郵便으로明快히責任回答하는日本一의通信敎授다
◇大特典 學費는右와如
한바나어대보다도싸고、實로學費에困難한獨學生諸君을爲하야決心하고奉仕的廉價가안인가 이우에獎學金贈呈과 英和辭典、漢和辭典贈呈、等을비롯하야他會에서到底히보지못할여러가지大特典이다。
每月 講義錄……二冊 參考書……一冊 機關誌……一冊
合計四冊式配本으로
此外여러가지大特典付로
學費僅히一個月一圓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只今에 新秋十月新學期는開始되앗다、只今이獨學開始의천스다 少年으로기쉬우나工夫는적을때에限한다 그러니 只今의斷然입고 新學期開講의이完備한 理想的인 最新中學講義錄에 入會하야將來立身成功의基礎를삼으지라
見本無料進呈
東京市牛込台町二〇
大日本通信中學校
規則書申込次第見本付規則一冊을곳無代進呈함 늣지면이짐으로只今곳내시라

異邦遠海出漁中의 百餘名漁父難遭
山東沿海에서十七隻이失踪
五日만에眞相判明

【警務局着電】 전남경찰부로부터 경무국에 도착된전보에 의하면 전남고흥군라로도(高興郡羅老島)로부터 중국산동성산동(中國山東省山東) 해안에 잇는어장으로 고기잡이를갓든 발동긔선 이십척중 십칠척의 승조원 약백명이 지난이십오일 폭풍우로 말미암아 전부 행방불명이되엿다는 무선전신이 이십구일오전에 도착하엿슴으로 이를 조사구호코저 이십구일오후세시반에 전라남도 어장취체보호선 무등산환(無等山丸)을 현장에 곳파견하엿는데 이배는 삼십일오후 다섯시경에나 현장에 도착되리라한다 (以上號外再錄)

討伐隊게驅逐되야 土兵、長白에集結
凶作에우는同胞農村을窺視
憂慮되는今後事態

【咸興】 함남도 경찰부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십월일일현재 함남도대안 장백현(長白縣)내에 잠거하고잇는 토병단(土兵團)은 도목(頭目)이십오명에 토병총수는 일천오백명이나 된다고하는데 이는 대부분 관동군 토벌개시로인하여 림강(臨江) 안동(安東)현등으로부터 밀려들어온것인데 극도의식량난에 빠지어잇슴으로 모다 방곡주수한 각지농가를 무진으로 습격략탈을 감행하여 가진폭행을 다하고잇는중이라는데 주민들은 금년도 전변에 지지안흔 흉작을 맛나서 룸과 이삼개월밧게 더지속못할 근소한식량을 모조리빼앗기는 현상임으로 그곳주민들의 생활은 실로 목불인견의 참상을이루고 잇다하며 특히 가장 수히(약四만)거주하고잇는 의주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은 극히 우려되는중이다

九月中被害만 一百三十回以上

별항=장백현내에 거주하고잇는이주동포들이 구월중에만 토병들의 피해를바든 통게를보면 신체(身體)에대한 피해는 십칠건에 인원은 이십삼명이며 재산피해는 구십삼건에 삼천삼백륙십이원구십전이며 출회수만 일백삼십회를 초과한다 이제그내역은 다음과갓다

傷害 二件二名 拉去 三件一九名 毆打 二件二名 計一七件二三名

金錢日貨 一三件一九九圓五五錢 滿貨 一件四二圓七〇錢 家屋放火 一件一五〇圓 物品五二件二〇四圓〇五錢 家畜 六件六六圓六〇錢 計 九三件 三三六二圓九〇錢

南京軍官校事件

【新義州】 루보 천진(天津)으로부터 잡혀온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의 제이기생 장재복(蔣載福=本籍元山府本町)에 관한판결언도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팔일 오후한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엿는데 국지(菊池)재판장으로부터 징역일년을언도하얏다

가을이 밟히는 落葉의 길 (昨日秘苑에서)

年少情郞따라 出奔한妙齡女
仁川署에二件

【仁川】 나희만흔 남편실혀 출분한 모험녀…… 인천부 외리(外里)사번지의상호 림의광(林義光)(三?)의처 김씨(金氏)(二?)는 변마한 남편이 실혓든지 지난이십오일 그남편이 업는틈을 타서 제봉기、가구의류등을 휴대도주하얏슴으로그남편이 실색하고 소관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얏고 신화수리(新花水里)이백륙십칠번지 김경석(金敬錫)의처 섬월(蟾月)(二?)은 그이웃 리종국(李鍾國)(二?)과 손을잡고 어대론지 연애도피행각을 하얏다한다

三處女의出奔
果然魔手嫌疑

【仁川】 시내화평리(花平里)이백륙십사번지방춘화(方春和)의사녀 정숙(貞淑)(一七)동상백이십륙번지 장기덕(張基德)의 이녀성완(成完)(一七) 만석정(萬石町) 강원규(姜元圭)의 장녀영애(榮愛)(一?) 삼명은 지난이십륙일오후일시경에 시내구경을 나간채 도라오지아니함으로 가족들은 부근일대를차저보앗스나 맛츰내 종적을알길이업다는데 인천서에서는 근일경성시내에 횡행하는 유인마들의 소행인혐의가 잇서서 비밀리에 엄중수색중이라한다

力技大會盛況

【泗川】 본보사천지국 후원으로 지난이십팔구일에 개최하려든 조선력기계의 지한 주홍(朱鍾鎬)군의 력기、합예、긔합술대회는 그일행의 사정으로 예정보다 연긔하여 자난이십삼사량일에 개최하엿슴을바 한군의 신긔모험적인 력기、긔합술에는 누구탄복안흘수 업섯스며 우인조의 롱에비범한 체조에도 장내의 환호를 올니엇다 그리고이십오일 오전구시경에는 당지보통학교에서 학생을 초대하야 력기의 체육운동을 보급코저 공개회를마치엇다한다

建築工事場에 便所設備를두라
無施設者는不許方針

건축공사장에도 변소의 설비를 해야한다=재래 경성시내에는상당히 지시일이걸리는 건축공사장에도 변소의설비를 하지아니한채로 공사장의 인부들이부근에함부로 오예물을 배설하엿기때문에 도시위생상으로보나 방역상으로보나 적지아니한 페해를 끼처왓는데 수원경 경성부위생과에서는 시내각경찰에대하야 장긔건축공사장에는 반듯이대소변의 방역구적 변소설비를하게하는 조건부로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위촉하엿슴으로 경찰당국에서도 그방침에 쫏기로 하엿다 그리하야 압흐로는그러한설비가업는 건축공사장은 허가를 아니할터이며 또건축당사자은 그설비와동시에 경성부위생과에 계출하야 분뇨의 급취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한다

成狂人노코讀經타 四人殺傷의慘劇
手斧로三人을斫傷하고서
病者는自刎即死

【新義州】 평북 태천군 강동면 구성동(泰川郡江東面舊城洞) 리운홍(李雲興)(四?)은 악일년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생기엇는데 그부친되는 리호익(李浩益)이가 이를 곳처주라고 백방으로 약을 쓰다가 금월팔일에 가장 영검하다고 소문이 잇는 장님으로 그부근에사는 림승현(林承賢)(三?)과 또 복술하는 표일홍(表日弘)(五?)두명을 청하야다가 리운홍을 붓들어 안치고 사오일간 계속하여 『경』을 닑든중 이십일일밤 리운홍은 돌연더발광하야 독기를들고 그처 김씨(金氏)(?)에게 달려들어 엽골과 몸통이를 함부로 따리어 혼도식히고 또몽둥이로 전긔 복술 표일홍을 따려 역시 인사불성에 이르게한후 다시 장님 림승현을 무수란타하다가 내종에는 칼로찔러 즉사식혓다 그후 밋처 날뛰든 리운홍은 집안에 더죽일사람이 업고 모다 죽어넘어진것을 보고 초연히 안젓다가 그칼로 자긔목을 찔러그자리에 업드어 죽고말엇는데 근래에업는 대참사로 현장에는 선혈이 림리하야 처참한 광경을 일우엇섯다고한다

白米時勢續落
多少가벼워진細民억개

햅쌀이도라대기는것이 점점활발해지자 쌀갑도차츰차츰 떨어저서 봉급생활자 밋일반세민층의 억개가 다소 가벼워지게되엿다 이십구일 아츰에도 경성부에서는 제이차로 공설시장의 쌀소매가격을 아래와가티한『키로』에 오리식나리기로 햇는데 한섬에는칠십오전식 나린세움이다

多摩錦特等 一『키로』二十三錢五厘

多摩錦一等 一『키로』二十二錢五厘

普通一等 一『키로』二十二錢

貞粉이失踪

시내계동(桂洞)구십번지 림유경(林有慶)의 삼녀정분(貞粉)(九)이는 이십팔일오후네시경에 시내탑골공원에 놀러갓다가 돌연 자최가업서지고말엇는데 혹시어떤유괴마의손에 걸리지나안핫는가하야 이십구일 소관종로서에 본안계에 그 수사원을 제출하엿다

生活難飮毒

부내계동(桂洞)[illegible]의안해 [illegible]은 이십구일오후네시쯤에 양ㅅ재물을 마시고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곳경운동(慶雲洞) 구십번지홍제(洪濟)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 별이상은 업겟다는데 리유는 생활곤난으로말미암은가정불화때문이라한다

警察署코압헤서 秘密딴스·홀開設
法網에얼킨『빠ー모나코』

표면으로 찻집간판을 걸고는절대금물인땐스·홀을 그나마도경찰서의 바로턱미테서 비밀히경영하다가 필경 발각되고만 사실이잇다 시내 죽첨정(竹添町) 이정목에서『빠ー화』 찻집을 겸하야경영하는『모나코』에서 비밀히『땐쓰·홀』로의 경영을 하고잇다는 투서가 서대문서에 자주드러오므로 동서에서는 긔회를 벼르고잇든중 이십팔일밤 열시경강등(江藤)보안주임이 변장을하고 림검한결과 과연 손님과 마담이 마주잡고 춤을추기에 마추어『스텝』을 밟는현장을 발견하고 마럿다 그리하야 동서에서는즉 주인을 호출하야 취조를 개시하엿는데 이비밀『땐스·홀』은문간에 파수하는『웨이터ー』까지두어가지고 낫모르는 손님이든지 혹경관이 오는때에는 군호를하야즉시『땐스』를 중지하도록 줄

工費八十五萬圓의 南山周廻大道路
市區擴張과並行豫定

오래ㅅ동안 경성부의 현안중이든 남산주회도로(南山周回道路)는머지안허 경성부의 시가지 계획령(市街地計畫令)과밋 행정구역확장(行政區域擴張)실시와 병행실현케 될터이다 이도로의 총거리는 십오리로서 이에드는공사비는 팔십오만원이라는데 이도로좌우에는 부유지(府有地)가 근사십만평이나잇고 사유지와기타군용지(軍用地) 관유지등이 이십여만평이잇서 사용할 토지매수에도 그다지 난관은 업스리라한다

동남부 발전의 대동맥(大動脈)이요 팽창경성의 분가신경이될 이남산주회도로를 촉진하고저 이십칠일 경성도시 계획연구회(京城都市計畫硏究會)에서는관계자 이백오십여명을 초청하여다가 아츰열시부터 계획선을따라 신용산삼각지(三角地)를 출발점으로 이태원(梨泰院)한강리(漢江里)등을 답사하고 신당리무학정(新堂里舞鶴町)까지에계획선조사를 마친다음 해산하엿는데금후 동남부 발전은 팔보할형세이며 이를따라서 토지매매열은 자못활발해질모양이다

禁斷의果實을 노리는天使!

마음업는곳으로 시집가라는 어머니의 명령을바차고서울로 직업을구하러올러와다가 마음내키무서운 유인의구렁에빠진시골처녀가 잇다=황해도

死의刹那를救하고 闇夜、貞操를摹索
沒理解한結婚을避한길에
"處女"를일흔處女

사리원군곡동(沙里院栗谷洞)에사는리봉순(李鳳順)(一七)(假名)은약일개월전에그의어머니의시집가라는 명령을 바차고 서울로 직업을 구하고저 영등포(永登浦)경성방직공장에 다니는 그의녀형 리연례(李然禮)(二?)를차저 봇다리를 끄려가지고 방황타서 도망해왓섯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생각하는바와가티 꼿소흔 직업은 업고 또 반가히 마저주리라고 생각하엿든 그의녀형은 시골로 도로가라고만 함으로 그는 자살하여버릴 결심을하고 이십팔일 어두운밤에 한강수깁흔물에몸을 텀벙 던지고저한강신사로가는놉흔 언덕에서서마음대로되지안는 이세상을 저주하고몸을던지려할때 이를발견한 삼십이삼세된청년두명이 그를 붓잡어서 아슬아슬하게도 그를 구조한후 직업을 구해 주겟다하고 부내청진동(淸進洞) 이백사십오번지 대창려관(大昌旅館)에 데려다가 류하게하엿다 그가 아직도 못하는 청년에게 구조를바더 감사한 생각으로 흥분을며 조마조마하고 잠을일우지 못하고잇슬때에 밤중쯤되야 그를구해준 청년이 전긔리봉순의 자는방에 들어와서 전등을끄고 폭행을가하려하야 그는한참어시 욕을당하고마럿다 직업을 구해주겟다고 감언리설로 꾀이고 그녀자의 정조까지 유린한남자는 이십구일아칩 직업을 구하려간다고 어데로나간후 오후가되여도 드러오지안하매 리봉순은 처음으로 속은줄알고 자못불안스러운태도로 울며자살 하겟다함으로 그려관에가티 잇든사람들이 수상히 생각하고 자살할염려가 잇다하야 소관종로 경찰서에 통지하여왓다 이보고를바든 경찰서에서는 그를보호하는 동시에 그에게 직업을구해준다고 속히고 그에게 폭행까지한가면을쓴 자선의구조자 양복신사를 조사중이다 그런데 리봉순의아버지 리성희(李成熙)는 지금안성(安城)에서 살고전긔사리원에는 그의 어머니만잇는데 그의어머니가 그동리사는 리(李)모라는 총각에게 정혼하야 이십삼일을 결혼날로 정하엿스나 그총각은 몹시 가난하고 무식하야평생에 고생만 하겟슴으로 서울로달어온것이한다

◇사진은리봉순

電車에떠러저 看守君이看羞

재복제모의 형무소간수가 달리는전차에서 뛰어나리다가궁떼러저 중상을하고는 운전수더러 정거를 아니하여주엇다고불평=이십구일 오후세시반 시내봉래정(蓬萊町)일정목 칠십칠번지압 전차길로 경전 제일백륙십륙호 전차가 효자동(孝子洞)을 향하야 달릴지음에 서대문 형무소의 간수교본강(橋本剛)이 운전대로부터 뛰어내리다가 실수되어뒤통수를 길바닥에부듯치고 노진탕을이르켜 인사불성이 되엇다 그리하야 부상자를 즉시『세부란스』병원으로 떠메어다가 치료한결과 겨우 의식이 회복되엇는데 의식이 회복되자 그는『정거를해달라는데 아니해주어서그랫다』고 크게불평을 부르지젓다고한다

兩名勝探勝團 無事히往還

【沙里】 본사리리지국 주최인내장 백양 량명승탐승단은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칠일 오전칠시 오전팔시 두대의 자동차로 단원을 분승하야 목적지인 장성백양사를 거처 정읍내장을 탐승하고 다음으로 정읍보천교본부를 사샅히 구경한다음 동일오후 십시경에 일동이 무사귀환하얏다고한다

運動競技

全關西拳鬪大會決勝에 全一南君快勝

全關西아마튜어拳鬪聯盟主催의 明治神宮奉納全關西아마튜어拳鬪大會決勝戰은 二十七日午後三時부터 甲子園拳鬪場特設링에서 擧行한바 메더級에 關西大學在學中인 全一南君이 緣橫俱樂部花岡君과 對戰하야 判定으로이여 來十一月五日 午後六時에 明治神宮外苑相撲場에서 新井勇將을 相對로 競爭하게되엿다한다

明治神宮競技의 朝鮮代表活躍
卓球에會金君優勢

【東京電話電通】 第八回明治神宮競技大會第一日은 二十九日午前八時부터 神宮外苑에서 開催되얏는데 朝鮮關係分마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中等軟式庭球】
×徽文(金亨泰 李康鍾) 1…4 滑商(藤本 岸)○
×正義(張受謙 金沃周) 3…4 阜岐(森林)○

【一般男子卓球】
金相贊(朝鮮)3…1 宮(岩手)
曹明煥(朝鮮)3…1 長谷(石川)
金炳雲(朝鮮)2…3 難波(大阪)

【一般女子卓球】
金丁恩(大女)0…3 前川(愛媛)

【一般女子軟式庭球】
○淑女(吳時伊 林豪實)4…3 岐阜(小高西)×
○一女(牧川 江野)4…0 木村(台西 林田澤)×

【一般男子硬球第二回戰】
相良(惠?)(6…3 6…1 6…0) 管(朝鮮)
河村(朝鮮)(6…2 6…1) 鹿島(早大)
鴨打(楊俱)(6…3 6…1) 上甲(朝鮮)

【中等柔道三回戰】
京城師範 1…2 天理中學

早慶第二回戰 慶應遂勝捷

【東京電話電通】 東京六大學校리ー그戰의 掉尾를裝飾할 早慶第二回戰은 二十九日午後二時三分부터 神宮球場에서 野本(球)片桐 長澤 橫澤(壘)四氏審判下에 早大先攻으로開始한바 早大若原回代身에 近藤을노코 健鬪하엿스나 慶大一回에 一擧三點을 거두고 早大는 八回에 一點을 겨우回復할뿐으로 結局 三A對一로 慶大軍이勝捷하엿다 (閉戰四時十七分)

慶應 3 0 0 0 0 0 0 0 A
早大 0 0 0 0 0 0 0 1 0
3A…1

◇投捕=早大(近藤 鵜飼 藤堂) 慶大(土井 中田 櫻井)

今日의運動

▲陸上競技=延禧校內陸上競技大會 午前九時半 同校運動場

⊙世界一의綿絲生産都市인、名古屋製品大宣傳、大供給

販賣코ー쓰大革命! 販賣品을全部自家工場에서 製造하야大衆的으로 大廉賣함으로써特約店、仲買人、問屋도無用의廢物이올시다 이런革命的大廉價品을꼭一次利用하시라。

大産‖大販‖市價의‖半額

⊙小賣市價의半値以下、絶對責任付、不向返金、品替自由

高級トンビ

本ラクダトンビ 十三圓

高級ラクダトンビ 二十三圓

生地는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

本ロスキントンビ 十八圓

高級品으로 極上ロスキン地로서本絹朱子總裏付、絹飾付、市價三十圓以上의品 어느것든지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値

スポーテックス地 青年向背廣洋服

中年向本年流行上等生地色合、紺、黑、茶色이며秋冬春着用됨니다

中年向 三ツ揃 五百着限大特價 一着 八圓八十錢

鬼三枚底總靴革

鬼三枚短靴 一足三圓五十錢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此靴는耐久本位로서底는牛皮三枚重ね中底는上等牛革으로 販賣新式機械製의特製品 十文半까지同價

サージ洋服

特別紺、黑サージ地로서仕立入念丈夫

向一般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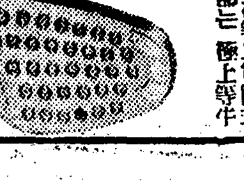
詰エリ特品 八圓五十錢
詰エリ上品 六圓五十錢
三ツ揃特品 十六圓
三ツ揃上品 十一圓

青年訓練總革靴 無比堅牢

一足三圓五十錢

絕對耐久二個年以上

此訓練靴는軍隊用靴와갓고 製法等도軍隊式으로原料의用部는 極上等牛皮底는極厚牛皮에다金釘數十個를박고前後에는踵鐵을대엿슴으로軍隊靴以上耐久力이잇소



ウーステット地 紳士向背廣洋服

本年流行의紳士用ウーステット地最新柄薄色地에杉織、縞柄格子柄等年齡御指定

上品 三ツ揃一着 十五圓五十錢

●ウーステット地ニアルパカ總裏付

特品 三ツ揃一着 十八圓五十錢

●特上ウーステットニ本絹朱子總裏付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高級職工의手製요原料等은모다最良品을特選한것임으로一足十一圓以上의品이요十文부터十一文半까지 同價

深型靴 五圓五十錢

ボタン先付舶來エナメル付 短型靴四圓五十錢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最新ピッケ地 紳士向背廣洋服

特選高級品三ツ揃一着 十六圓五十錢

高級中年向으로小ミジン과アゼ柄의優良品이며裏는アルパカ와絹朱子

流行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絶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品이오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 短靴 三圓七十錢

御注文의便利

御注文은‖手紙로申込하시오 便宜上代金引換으로荷送함
絶對保證‖品質에對하야絶對保證 必히地方小賣價의半價以下
品替返金‖마음에맛지안으면品替返金自由
送料負擔‖送料는當店負擔 絶對로迷惑케아니함

製造直販元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 電話東五二一四番 振替名古屋一七六三番

藥劑는 어떠한것이 最良하다 할가

그것은 內務大臣을 會長으로하고、醫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 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 그品位를 定한、日本藥局方收載의 藥劑가 正確最良함으로、我醫療界의 基準이되야잇는것이다。

그럼으로 有田도락구商會는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의 內務省衛生試驗所의 檢査封緘한 優良最高貴藥劑를 根幹으로하고、世界醫學界의 權威者公認의 藥劑를 配劑하얏스며 더구나 東洋에서 二千年來、治療醫學上 그効顯을 認定바든 高貴한 皇漢藥을 併用配劑하야、發賣하엿던바、全治者들이 계속的으로 新聞紙上에 發表하야 肺病이 決코不治症이아닌것을 明白하게 表示하는 聲價를 博得하게된바이다。

強 肺

醫藥最高權威者選定高價藥配劑公開

肺結核 ろくまく炎 肺尖カタル 專門藥

別製治肺劑는 左記二十三種配劑의 綜合醫治効能에 依하야 自然機能을 旺盛히하고 여러가지 症狀을 輕快케하여줌

別製治肺劑 (十月調査一키로의 原價)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劑綜合配劑	
호루모劑 二種(一種 千六百圓、一種 千二百圓)	
健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劑綜合配劑	
結核解熱劑 二種(一種 二百三十圓、一種 三十一圓)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二種 十四圓、十八圓七
食慾促進劑	二種(一種 二百六十圓、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壯劑	一種 五十二圓
鎭咳袪痰劑	二種(一種 七百四十圓、一種 七十一圓)

●有田도락구商會의 治肺劑、創設以來의 [illegible] 全快者에 [illegible] 新聞에 [illegible] 發表된 [illegible] 全快者가 하드라도 實로 [illegible]에 達하다。

●本社는 그 多數의 全快者의 住所氏名을 明記하고 全快者의 [illegible] 本社 自信의 자랑이다。

理論보다 證據 全快者는 藥効와 衛生으로된 反映

他新聞廣告에서 잘보는 全快者는 住所를 明記하지안코 姓名과 姓名만으로 자긔를 알수업시 만들어내는 일도잇다。

이 病은 다른病과 도달너서 病者에 [illegible] 村 이 오래면 오랠사록 自然町村 內에 알녀지고 또 [illegible] 알수잇는것이다

●町村에는 駐在所가잇고 面事務所가 잇슴으로 거짓이 잇스면 곳 [illegible] 일어나게 된다。 本社의 發表한 全快者는 [illegible] 者도 [illegible] 에서 나온 [illegible] 소리다。 더구나 그 全快는 硏究室에서 된것도 아니라 [illegible] 我國民은 大衆衛生 [illegible] 의 全快다。

[illegible] 不治病이다라고 [illegible] 死境으로 빠지는者가 만타。 有田도락구商會의 發表하는 全快者를 보드라도 斷然不治症이 안인것은 自明할일이다

●現今、當局의 取締가 甚히 嚴重함으로、虛僞又는 誇大廣告는 不許하나니 이런 高貴藥配劑公開는 秋毫라도 虛僞가 안이다。

●肺病患者는 本劑로써 一日이라도 빨이 健康을 回復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本社는 患者의 秘密을 絶對로 嚴守함

警告 가짜藥을 파는 사기師가 잇다

商標에 大阪內本町의 文字잇는것을 사시라

有田音松鑑製

有⊕도락구專賣所網 (朝鮮)

(本舖) 大阪內本町 有田ドラッグ本社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羅山錦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象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漢頭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全快者は全快者の 美華 藥効

最近의 全快者

「肺病은 꼭 낫는다」는 信念으로써 服藥
鬪病體驗記를 同病者에

일年마치고、급히 집에 도라가는 도중에 비를 흠북맞고 감기걸인것이 원인으로 미열과 권태와 식욕불진이 이개월동안 계속되더니 맘에 의사가 폐첨가다루라고 진단하엿슴니다。 그때부터 열불동안은 공포와 비탄에 마음괴로움이 떠날날이 업서 로 갈치이 [illegible] 업서지는듯것이 낫습니다。 그러다니 오늘날 신문에서 전쾌자의 긔분 소식을 듯고 [illegible] 한지도 [illegible] 안동면 폐병이라도 무서울것이 업다고 말들하는것을 보고 나의 참 욕하던생각에도 활력과 희망이 끌어올나왓슴니다。 바로 太田町大門 通아리다도락구전매소를 차저가서 [illegible] 그후의 료양 법에 대하야 지도를 바덧슴니다 [illegible]

川島文吉氏

그후의 료양법에 대하야 안정료법、음식료법、일광료법등에 대하야 [illegible] 주입에 거지금까지의 경과를 말하고 [illegible] 결한 설명을 맛고 [illegible] 의 원이 들 말하는 『벽산드는집에 [illegible]』 고하고、병은 마음으로 낭거린다』고하고、병은 마음으로 되는병이니 정신적으로 병을 낫치지 안흐면 안된다 고하는것、아 줌에 신선한 공기의 피료한것、신 체의 영양을 회복하는데는 음식양 생에는 음식에 치중하지 안흐면 안 되는것도 잘알게되야、별제치폐 제와 협액소의 두가지 약을 사섯슴니다

꼭 낫는다 아니 꼭 곳처보인 다하는 신념으로써 섭생하고 약도 먹 엇습니다。 이결과는 말할것도 업시 열이 내리고 식욕증진、상쾌감이 란 경과를 따리서 점점전쾌되야、 리동병자에게 이산경험으로 발표 하는 긔회를 어게 되얏습니다。 전쾌후는 갱생의 몸으로 마음 청 변지도 를 맛게 되야 양잠、 농사에 열중하고 잇슴니다。

群馬縣佐波郡采女村宇 [illegible] 全快者 川島文吉

肋膜炎은
放心한 주 肺病이 된다
初期의 服藥이 緊要

갑작이 심한 두통이나 고열기가 날 것것 드니 그뒤에 손발 이 독죄하고 도한이 나면 서 가슴이 때때로 쑥쑥 쑤시고 입호고 기침 이나서 숨이 갑흠으로 의사에 게 진찰을 바든즉 열도 三十八度 五分이나되고、우 [illegible] 左肋 性肋膜炎)이라하엿습니다。그런가 운데 최근에 동무 한사람이 떠록 마 [illegible] 에서 폐병이 되얏습으로

川田きよみ氏

페를 상한지 안흐 동안에 뻘 니 고저 못다는 초조하게 잇는대 다행이 신문에서 아리다도락구 의 약이 대단이조타는것을 알고 곳 名古屋千種町古井坂아리다도 락구전매소에 일으러 별제치폐제 와 아리다협액소 (別製治肺劑와 有 田血液素) 를 사왓슴니다。 그때주 임이 어던병이나 약만 미더서는 안되고 섭생도 잘하지안흐면 안 된다하며、약을 먹으면서 섭생즉 일광공기、음식、정신등에도 주 의를 하지 안흐면 안된 다고 알으켜주어 그 대로 하엿더니 四五 日후에는、 약효가 낫습 니다 그때부터 아조 밋고 북약섭생을 하는 중에 그와 가티 괴롭 던 기침도 안나고 가슴이 이즌 통이 살아지고、체중도 불고 혈색 도 전대로 되야 의사로부터 건강 체라고 증명을 밧게되얏슴니다。 이런 깃분일이 또 잇슴닛가。

名古屋東區千種町松軒町 三丁目二五 全快者 川田きよみ

肺尖가다루
初期면 쉽게 낫는다
발은 攝生과 藥劑의 選定이 必要

한참 모심는 동이라 피로되야 잇슴니다、 이때에 차게 잔것이 원인으로 감기 를 걸녀서 五、六日간 자리에 누엇 스나 낫지 안코、 주임은 친절히 중한 적효과 잇 식욕도 업고 긔운도 조치못 하야 늘 잔기침이 계속적으로 나 는약과、 일광、 공기、 음식、 정신 서 신체의 피로를 늣기고、또 때 로 법등을 잘 수의 시 혀주어 습으로 때로 가슴이 압흔듯 한데 을내엇 전도에 광명을 늣기고 습니다 집안사람의 권하는대로 이웃마을 의사에게 진찰을 바뎟더 니 폐첨가다루 (肺尖加答兒) 라고 하야 을 놋고 대단 걱정 하엿습니다。

柳樂孫樹氏

이웃 사람이 신문에 잇나 는 아리다 폐병약을 먹어보라 고 권하엿슴니다 그잇든날 今市 町新町아리다도락구전매소에 가 서 아리다 별치폐제와 혈액소를 주분 사가지고 도라왓슴니다 약은 규측 잇게먹고 아침에 는 일즉 일어나서 약수 어삼에는 [illegible] 에는 적당히 일광욕을 하 며 독서 가티 등불을 절대로 피하 고 정신의 안정을 피하엿습니다 기 다 당시 잡은 약을 먹어서니 기 분이 조와집 이 안나와서 대단히 기 으로 계속하야 먹주일분을 먹어 습니다 그리하엿더니 몸에도 대단 살이 붓고 혈 색도 나어습니다。 그새 매일 이불이 나쓰는 그 투명인 그뒤에는 감기도 안들이 고 몸 망소독을 잘하엿슴니다。 은 점점 강건하야저서 체중도 병중보다 一관오백 메나 붙어서 요새는 나날이 농사에 밧부게 지냄니다

나의 체험 으로 말하면 『병 에지지 안켓다』 고하는 마음으로 조 거에 복약하야 충분히 치료를 하면、문제 업시 전쾌된다。

島根縣簸川郡久村三九一 全快者 柳樂孫樹

有⊕도락구 · 有⊕音松鑑製

藥價

特製治肺劑 十七種配劑
八日分 十圓
德用品 十六日分 十九圓
重症連服用 特別奉仕 四十日分 四十五圓

別製治肺劑 二十三種配劑
八日分 十五圓
德用品 十六日分 二十八圓
重症連服用 特別奉仕 四十日分 六十五圓

有田血液素 피가되고 살이되는 作用이 잇슴
廿一日分 四圓
特別奉仕 六十日分 十圓

常用人夫三十名에 月數回體重을檢査

十四貫以下면斷然解雇處分

怪駭! 南浦日鑛處事

【鎭南浦】진남포일본광업제련소공작부(工作部)상용인부감독견인 등력(藤澤)이라자는 지난 이십륙일밤 방일하고잇는인부 김영식(金永植)을 사소한말끗헤 무수히 구타하여 삼주일이상 치료할상처를 내엿슴으로 피해자측에서는 상해죄로 고소를 제긔하리라는바 제련소 공작부에는상용 인부 삼십여명을 사용하는 촌전(村田)이란 총감독이 잇서 인부들에게 불친절함뿐 아니라 구타하기가 일수이고 처음 인부로 고용되려면 적어도 오원이상의 금품을 가저가야되고 또한 달에도 이、삼차식 인부들의 체중(體重)을 심사하여 십사관이하되면 해고 키로 되엿는데 이런 긔회마다 로동자들에게 뇌물받는것이 금년상반기에 이백여원에달한다고하여 하로에 륙칠십전밧게 밧지못하는 임금으로 무리한 착취까지 당하고는 살어나갈수가 업슴으로 방금 삼십여명로동자들은 그대책을 강구중이라는바 일반이 매우주목중이라한다

開城高靑主催 女子雄辯延期

【開城】개성고려청년회 학예부주최와 조선、중앙、동아삼신문지국 후원하에 오는 십일월이일에 개최하려든 제일회 전조선녀자현상웅변대회는 동회의대강당수리로 인하야 오는 십일월이십이일로 연기하얏다한다

無辜한通行婦女에 稅關吏又復暴行

密室에끌고가서脫衣後侮辱

被害者檢事局에告訴

【新義州】신의주세관교측감시소(橋側監視所)에서 근무하는「모」는 지난 이십사일밤 열두시경 밀수와는 하등관계도업는 최중옥(崔仲玉)(三ㅇ)이란녀자가 안동현으로부터 신의주를향하야 압록강철교를 건너오는것을 보고「밀수의혐의가잇다고」강제로 비밀실로 끌고드러가 강제로 녀자의옷을전부벗기고 함부로모욕을하므로녀자는 분함을못이기어 반항을하얏든바 그감시원은도로혀최중옥의 빰을갈리하야바른편귀의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닙게하얏다하야 지난 이십팔일에 최중옥은 이사유를 드러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고소를 제긔하얏다한다

國境少年少女 懸賞音樂盛況

【新義州】신의주「하모니카클럽」주최 각신문지국후원의 제이회 국경소년 소녀 현상음악대회는 지난 이십륙일 오후일곱시부터 신의주공회당에서 개최되얏는데 청중이 천여명에 달하고 출연악사가 륙십여명에 달하는 성황이엇는데 당일 당선된 악사는 다음과 갓다

▲男子獨唱
一等 金昌明 (北下)
二等 崔永杰 (麻田)
三等 白義源 (麻田)
▲女子獨唱
一等 金在甲 (義州)
二等 馬信午 (義州)
三等 李正女 (府內)
同 金永燾 (府內)
▲女子二重唱
一等 金振淑 金永蘭 (府內)
二等 田信子 金光淑 (北下)
▲合唱
一等 府內第二勉少合唱隊
二等 安東中央勉少合唱隊

全黃州主日校 聯合雄辯大會

【沈村】황주주일학교연합회 강론부주최(黃州主日學校聯合會講論部主催)로 십일월일일 오후칠시삼십분부터 전황주 현상웅변대회(全黃州懸賞雄辯大會)제삼회를 칠존례배당에서 개최하기로 되여동회간부들은 만반 준비에 분망중 공전의 대성황을 예긔한다는데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金元愛女史 主日學校의將來
朴贊錫君 活動하는靑年
安成燦君 내가보朝鮮敎會의現在와將來
金孝淑君 信仰의危機
朴基煥君 聖經으로살자
金東赫君 자라나자
申宗玉君 患亂中에榮光
李春植君 [illegible]
審査=李承浩 張[illegible] 于時俊

文岩津里住民代表 防波堤築造陳情

當局의今後處事注目

【杆城】양양군죽왕면문암리(襄陽郡竹旺面文岩里)에잇는 문암진어업조합(文岩津漁業組合)에속하는 어업구역은 죽왕토성(竹旺土城)량면인데 이어업구역내의 해안선의 기리가 사십리나된다 이사십리사이에는 구개진(九個津)이잇서 출입어선이 이백여척이잇스며 이배에 생명선을붓치고잇는 종업원이 수천명에달하나 해안선사십리사이에는 굴곡이전혀업서 거의일직선인 해안의 지세임으로 어선이 풍파를맛날때에는 피난할곳이 한곳도업서 매년어선조난 사건이 빈빈하므로 이를유감으로 생각하든지방유지들은 지난 소화팔년봄에 문암진방파제축성긔성회(文岩津防波堤築成期成會)를 조직하고 군도당국에 루차진정서를제출하엿스나 아직그효과를 엇지못하야 작년구월에는 긔성회에서 해안측량비로 오백원을제공하고 타원하엿든바 강릉토목관구에서 측량만은하얏스나 그후 일년이 지난지금까지 또아모런소식이업슴으로 지난이십삼일에 강원도 수산과장 유전승사(江原道水産課長有田勝司)산업기사 고교통부(産業技師高橋通夫)씨가 문암진 어업조합관내에 왓든것을 긔회로 지방유지대표 김용집(金鎔集)씨와 문암진방파제 축성 긔성회장한치룡(韓致龍)씨는 또다시 진정하엿는데 이에대한 유전기사의답변은 만히고려하겟다는간단한 답변이잇섯는데 일반은그결과를 주목중이라한다

麯子購入證配付

【井邑】정읍세무서(井邑稅務署)

端甲線工事人夫 三百名에勞賃不拂

連日請負業者事務所에殺到

道土木課서嚴重警告

【咸興】함흥부에 본사무소를두고잇는 삼정시(森政市)의 청부로 방금 거이준공에가까운 단갑선(端甲線)이등도로공사에 종사하는 삼백여로동자들은 한날은벌어서 그날 임금으로 살아가는 형편인데 청부업자들은 임너서 일개월후 느진때에는 이삼개월씩 로임지불을 지연함으로 궁박한 산간에서 극도의생활곤경에 이르고 잇는데 인제와서는 해공사가 거이끗나고다른곳으로 이동하여야 하게된때에 구월중순경의 로임을 아직도지불치안음으로 갈래야 갈수업는극도의 곤궁에 빠지고잇슴으로 지난 삼십일오후세시경 로동자김창화(金昌化)외 십오륙명이사무실에 쇠도하여 폭행을하엿스며 그후에도 매일계속하여 쇠도하야료를하고 잇는중이므로 도토목과에서는 해청부업자게 대하여 즉시로 임금지불키를 엄중경고하엿다

財産分配로因해 兄弟間에流血劇

龍川郡下의慘劇

【新義州】재산으로 말미운 골육간의참극=평북 룡천군 내중면 용산동(龍川郡內中面龍山洞) 김성간(金誠乾)(三ㅇ)은 그친동생 성문(誠文)(三ㅇ)이와 재산분배로 분쟁이 생기어 싸홈을 하여오든중 지난이십륙일도 역시 격렬한 싸홈을 한끄테 김성간은 격분에넘치어 식칼로써 그동생 성문의 배를질럿다 류혈이 랑자한가운데 혼도된 동생을보고 자긔도 그칼로 자긔목을 찔르고 혼도되엿는데 피로 강물일운 방바닥에서 죽음을 재촉하는 두남자의 모양은 실로 참혹하얏스며 아직 목숨들은 다 끈어지지 안엇스나 모다 위독하다한다

平高加藤敎諭 頌德記念展覽

【平壤】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는 십일월일일이 동교창립이십오주년긔념일에 해당하므로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한다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이날동교물리학(物理學)담임선생으로 십오년간 이란장구한세월을 조선청년을 훈육한 가등(加藤)교유의공덕을 표창하는모도옹이 동교천여명 졸업생의발긔로개최된다 따라서 가등교유를찬하하고 씨의 취미인 고고학(考古學)동식물학(動植物學)등 참고품과 향토예술품다수를 진열하고 일、이량일간에 송덕긔념전람회(頌德紀念展覽會)를 개최케되엿다

◇寫眞—加藤敎諭

期成會遂解散

大同江改修—

【平壤】대동강개수긔성회주최로 남포(南浦)면두단도운하공사시찰(斗團島運河工事視察)은 이십칠일수행 되엿다 긔성회장 송정민치랑(松井民治郎)씨를 필두로 ▲安武知事 ▲高橋府尹 ▲江阪少將 ▲福島會頭 ▲李基燦씨등과 신문관계등 오십여명이 십여대의자동차에난호아타고 도청을출발하여 현장에향하여 팔도(八島)토목출장소장의 설명을 드른후 오후두시경 석호정(石湖亭)에서 점심을먹엇는데 이시간을 리용하여 과거팔년동안싸화오든 력사를남기고 해산하는 동시에 평남중대현안 긔성회(平南重大懸案期成會)에 합류하여 계속활동을 하기로 되엿다

明太盛漁期압두고 肝油工場出願輻湊

廿五日現在咸南道水産課出願

百七十件에人員三百

【咸興】닥처오는 명태어업긔(明太漁期)를 압두고 함남도수산과에는 명태어 간유공장(肝油工場)면허 출원이 쇄도하고 잇는데 지난 이십오일까지의 출원건수는 실로 일백칠십륙건에 인원은 삼백여명의 실로 공전의 격증을 뵈우고잇다한다

朝鮮共靑同盟事件 鄭泰玉等不服控訴

重刑受刑者大槪不服

【咸興】지난 이십오일 함흥법원에서 최고 십년、최하 일년의 중형언도를 바든 조선공청동맹(朝鮮共靑同盟)사건 피고중 정태옥(鄭泰玉) 오긔섭(吳琪燮) 류영준(柳榮俊) 한홍익(韓弘翼)등 사명은 이십팔일에 공소(控訴)를 신입하엿는데 오년이상의 중형을 바든 피고들은 대부분 불복공소할듯하다한다

江西郡下火災 草家一棟全燒

【江西】평남강서군동진면학송리(東津面鶴松里) 차성호(車成浩)의집에서는 지난 이십륙일오전두시경에 불이나서 초가일동사간을전소하고 당지경관대와 강서소방대의 총동원으로 겨우진화하엿는데 발화원인은 자세히 알수업스며 손해액은 약사백원가량이라고한다

農林校設置와 法院復活陳情 永興代表上道

【咸興】함남영흥군대표 소실천대길(小室代吉)정산영(鄭山永)등팔명은 지난이십륙일 함남도에상도하여 동지방 다년간현안으로내려오는 농림학교 설치를진정하엿스며 다시 함흥지방법원장을 방문하고 대정십이년에 폐지되엿든 법원지청 부활을진정하엿다한다

赤色夜學事件 來月十九日公判

【木浦】전남 진도군(全南珍島郡)적색농민야학(赤色農民夜學)사건의 조병선(曹秉善)외삼인은 목포지청(木浦支廳)예심에 회부되지 만일년이나된 오는십일월십구일에야 목포지청에서 제일회공판이 개정된다 한다

金浦支局後援 庭球大會盛況

【金浦】김포청구구락부주최와본사김포지국후원의 제오회전김포정구대회는 예정과가티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부터 김포군청코ー트에서 관야구지조(關野久之助)씨의 개회사로 경긔가 시작되여 대성황리에 끗을마치엿는데 최후우승은 양천군에게로 도라갓다한다

開城財閥家協力 滿蒙開拓社創立 資本金一百萬圓

【開城】지난달 상순에 개성고려시보사주최로 남북만주시찰을 맛추고도라온 개성의 장년실업가 공진항(孔鎭恒)씨외 십여명은 만주에서 경영할목적으로 자본금 일백만원 주식회사창립에 분망중이던바 제반준비가 되어 십일월상순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리라하며 회사명칭은 만몽개척주식회사라 한다

凶作地實情不顧 東拓作料를過徵

一千餘小作人大不安

【沙里院】황해도재령군 북률면(載寧郡北栗面)일대는 금년도내의 농사가전체로 풍년인데동면은 유독히성숙긔에 도열병에걸리어 농작물에피해가 예상밧게막대하야 심한곳은 사할이상의감수가되여 소문업는 흉년을만낫는데 동척회사에서는 입도시(立稻時)검지 피해지를 조사하고 소작료를감하야줄 의사를표시하야 당시의일반농민들이 만흔 긔대를 가지고 오든중인바 동회사에서는 감수된 비례에표준하야 소작료를 감하야 주지안코 감하야 주엇다는 형식만을취한 가혹한 소작료 조정을하야 그곳농민들은 불평을가지고 잇서 소작료 수납시에는 만흔분규가 잇슬것을 예상할뿐더러 조정한소작료대로 납부하게된다면 간신히 살어가는 빈농한 농민들의생활에 큰위협이되여 동면 일천여호의 소작인의 중대한 문제라고한다

地方人事

▲金永彩氏(王東面長)新任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河仁容氏(晉州金融組合理事)赴任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高[illegible]氏(江西金融組合)成川金融組合理事榮轉人事次本報江西支局來訪

金海	靈岩	公州	大田	康翎
佛敎聖劇巡禮大公演	井邑內藏山長城白羊寺 婦人觀楓團	毛糸編物講習會	全朝鮮自轉車競走會	婦人編物講習會
▲時日 十一月二日、三日(兩夜)	△日時 十一月三日(土曜)(延期日字)	▲期日 十一月十一日、廿一日、十日間	▲時日 十一月三日(陰十月八日)	△時日 自十一月一日至十日
▲場所 金海劇場	△出發 十一月三日午前六半時(當日歸着)	▲場所 公州靑年會館	▲場所 大田木天運動場	△場所 康翎禮拜堂
◇主催 金海佛敎同心會	◇會費 每人當參圓(車賃食費其他一切)	◇主催 公州姬文堂	◇主催 大田、自轉車選手會	◇主催 婦人商會
▲後援 朝鮮、東亞金海支局	◇主催 本報靈岩支局	◇後援 朝鮮日報公州支局	◇後援 朝鮮日報社大田支局	◇後援 朝鮮日報社康翎分局

火賊 林巨正 (212)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二二

백손어머니가 건는방 문씨방을 넘어서며 곳 주저주저안저서
『자 속시원하게 아주 죽여라』
하고 니를 갈며 몸을 옹겨서 꺽정이 아프로 들어가니 꺽정이는 어이가 업는지 긔가넝이막히는지
『허 그거 참』
하고 눈쌀을 찌프리고잇다가 갓가이간 백손어머니의 성한다리 무릅께를 한손으로 내밀엇다 꺽정이의 힘안드리는것으로보아 분명히 사람을 두고 슬적 미는것이건만 백손어머니의 몸은 이때것 에써 들어간것이 헛일이되도록 주르륵 밀려나왓다
『왜 못죽이느냐』
백손어머니가 다시 아프로 들어가며 이번에는 내밀지 못하게 소매라도 붓잡으랴고 생각하얏스나 몸을 옹길때 두팔로 방바닥을 집는까닭에 미처 손을 놀릴사이도업시 또 주르륵 내밀리엇다 실컨 내밀어보아라 안채우듯이 백손어머니는 부적부적 들어가고 누가 지나보자 백장을 먹은듯이 꺽정이는 죽죽 내밀엇다 쌍의 승부가 여긔달린것가티 내외가 서로 지지안코 들어가면 내밀고 내밀면 들어가고하는것을 리봉학이와 방유복이가 백손이를 다리고 한옆에 가만히 서서 구경하얏다 한온이가 안방심부름군들을 다 내쫓친뒤에 건느방문을 열고 들어오랴다 말고 안방에서 방차우는 상노아이를 불러서 입가문과 중문을 아주 걸어두라고 말을 일르며 한발을 먼저 드려노코 남은발을 마저 드려노흘즈음에 꺽정이 손에 내밀린 백손어머니의 몸이 한온이 다리에 부닥첫다 다리가뻬끗 몸이 휘뚝、아프로 곡그라저 백손어머니를 덥처누르게되는데 한온이가 놀라서 몸을 엽핏 가는다는것이 백손어머니등뒤에 가로 쓸어지게 되엿다、한온이는 백손어머니를 인사하랴고 의관을 정제하고 온 사람이라 활개가 벌어질때 큰소매가 너푼거리고 머리가 방바닥에 다흘때 넘은 갓량태가 꺽거서 깔렷다 한온이 입에서
『아이쿠』
한마듸는 경황업시 나왓스나
『새우 잠에 고래 등터지네』
뒤미처 나온말은 말뿐아니라 말소리까지 의살스러웟다 누가 일으켜주기를 기다리는것가티 쓸어진채 누어잇는 한온이를 바유복이가쪼차가서 붓들어일으켯다 한온이가 한번 평더락성하는동안에 꺽정이 내외쌈이 잠시 중단되고 또 조금 물거젓다 백손어머니가 뭉기적뭉기적 한온이를 피하야 안진뒤에 슬금슬금 꺽정이게로 갓가이 오는것을 꺽정이가 보고손을내저으며
『대들생각말구 거긔안저서 말루해』
자긔부터 비로소 말로하는데 말소리도 그대지 거칠지아니하얏다 리봉학이가 얼른 백손어머니 아페 나와서며
『아주머니 그러케하십시요 두발부리를 하실때하시드라두、우선 시비를 달루 가리구나서 하십시요』
은근히 백손어머니를 가로막앗다
『이리, 와서안께』
꺽정이가 리봉학이를 여페 불러다가 안치고 그다음에 방유복이와 한온이를 보고 미리들오라고 말하야 방유복이가 한온이와가티 꺽정이 자리아페와서 모꺼거 느런히 안젓다 백손어머니가 꺽정이게로 가자면 리봉학이의 자리를 지나고 바유복이의 무릅을 스치게되어서 갈생각을 안먹고 도리혀 뒤로 물러나안고 백손이도 혼자 섯기가 실튼지 저의 어머니여페 와서 쭈구리고 안저서 꺽정이와 리봉학이가 아랫목자리를 차지하고 방유복이、한온이와 백손어머니、백손이가 량엽자리에서 각각들 마주대하게되엇다。
『오늘저녁가튼 창피한 꼴은내평생이 처음인가베』
꺽정이가 리봉학이를 돌아보는데 리봉학이는 꺽정이의말을 대답안코
『아주머니 말슴안하시우』
하고 백손어머니를 바라보앗다

趣味實益雜誌 朝光 再版發行

三十一日發賣

極豪華版 四百餘頁大冊三十錢 【十一月號】 (郵稅本社負擔)

斷然大人氣

大量部數創刊號發賣不過五日에賣盡
朝鮮雜誌界初有大驚異
超모던의送年號를印刷中임에도不顧하고 天下의渴望으로
創刊號再版

振替京城五八七八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